

북-미, BDA 질문서 사전 교환

■ 2차 BDA 실무회의 오늘 재개

일부 계좌 동결 해제 의견 접근한 듯

북한과 미국은 30일 재개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를 앞두고 불법행위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계좌와 관련해 서로 궁금한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교환해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양측이 지난달 6차회담 기간에 진행된 BDA 1차 실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명이 필요한 내용을 통해 '간접 협의'해온 만큼 30일 속개되는 2차 BDA 실무회의에서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일정한 합의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이 지난달 1차

BDA 회의 이후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로 알고 싶은 내용을 담은 질문서 등을 교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로 이른바 달러 위조와 밀수 등의 혐의가 짙은 계좌에 대한 북한측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계좌주가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연관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북측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측이 제기한 문제 계좌나 계좌주에 대해 자신들이 금급해하는 사항을 담은 질문서와 함

께 BDA 계좌 동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등을 담은 자료 등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DA와 관련해 동결된 북한 계좌는 20개 북한은행, 11개 북한 무역회사, 9개 북한 개인계좌 등 5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평양의 영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 계좌와 세계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의 계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베를린 북미 회동 뿐 아니라 양측이 사전에 문서를 통해 사전협의를 해음으로써 BDA 협상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초에 열리는 6차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지 않는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濠 유학생 출신 영주권자 영어능력 '미달'

호주에서 대학과정 등을 공부한 뒤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영어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언론들은 모나쉬 대학 비벨 박사가 실시한 조사 자료를 인용, 호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영어가 제대로 안 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대학들의 입학 사정과 평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출신들이, 그리고 전공별로는 컴퓨터나 회계학 등 언어능력이 많이 요구하지 않는 분야 출신자들이 영어에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른편드=연합뉴스



후진타오, 조선족 농가 방문

26일부터 28일까지 을 첫 지방순시를 위해 동북지방을 방문한 후진타오(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린(吉林)시 창이(昌邑)구의 한 조선족 농가를 찾아 생활환경 등을 물으며 위로하고 있다. 후 주석이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린성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美 최신예 항모 레이건호, 日 요코스카로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를 비롯해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돼 샌 디에고 기지를 27일 출발, 일 요코스카로 향하고 있다. 전투기 및 공격기 70~80대, 조기경보기, 전자전지원기를 탑재한 레이건호의 한반도 인근 배치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움직임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이라크군, 저항세력 250여명 사살

미군과 이라크군은 28일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 교외에서 헬기와 탱크를 동원한 작전을 통해 저항세력 250~300명을 사살했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이날 공격으로 사망한 저항세력은 수니파 아랍인들과 시아파 성직자인 아흐메드 하사니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공격 과정에서 미군 헬기 1대가 격추당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과 이라크군이 합동작전을 통해 이처럼 많은 규모의 저항세력을 사살한 것은 을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나자프리터=AFP=연합뉴스

이번 작전은 시아파 무슬림들이 시아파 명절인 아슈라를 맞아 나자프 인근의 카르발라로 운집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라크 당국은 아슈라 행사에 맞춰 저항세력들이 종파 간 분쟁을 부추기 위해 시아파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군과 합동작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슈라는 =이슬람력으로 1월10일을 뜻하는 아슈라는 시아파가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맘 후세인의 기일(忌日). /나자프리터=AFP=연합뉴스

中, 세계유산 신청지서 백두산 빠져

내년 유네스코에 三淸山 단독 신청키로

중국이 결국 백두산(중국어명 창바이산)을 차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지에서 뺐다.

중국 국가건설부는 최근 장시성 상라오시의 완청산(三淸山)을 내년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신청할 유일한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홍콩 문화부가 29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청두의 '세계자연유산 신청 공작 회의'에서 60여 개 후보 가운데 백두산과 쟁청산을

헤이룽장성 우다렌즈 화산, 윈난성 청장 고생물 화석군(群), 칭하이성 칭하이호, 신장 커나스호와 함께 6대 중점 신청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지린성 당국은 한국과 북한 등의 반발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방침에 차질이 빚어지자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에 우선 등재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매년 한 국가가 한 곳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英 정치자금 스캔들 '블레어 메모' 발견



경찰, 총리실서 입수 "12명이 1,400만파운드 제공"

래프가 28일 보도했다. 경찰이 총리와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거 기록을 찾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메모에는 2005년 실시된 선거 지원을 위해 12명이 1천 400만파운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리실서에서 입수한 자료 가운데 해당 메모를 발견했다면서 총리실이 선거 자금 제공자 대부분에게 귀족직위를 제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2명 가운데 4명에겐만 귀족직위가 수여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 조치된 영국의 억만장자 기업가 필 메모를 발견했다고 선데이 텔레그

에 포함돼 있었으며 블레어 총리가 이 외에도 백만장자 데이비드 캐러드와 굴람 난, 파리아리 병원 창설자인 차이 파텔, 배리 타운슬러도 포함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필 메모가 발견되면서 블레어 총리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고위 소식통들은 당 관리들이 오히려 블레어 총리가 자금 제공자들을 내정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인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20만파운드를 낸 세인즈버리 경은 이미 1997년 총선거에 임명되는 등 12명 가운데 일부는 귀족으로 임명되기에 적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성공 사례 배우세요"

潘崇장, 阿 정상회의 참석 전정 피해 극복 과정 소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들의 회의 자리에서, 아프리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목표를 일치시켜 발전을 이룩하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반 총장은 2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에서의 어릴적 경험으로

어떻게 전쟁이 송고한 삶과 번영의 기회를 찾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총장은 이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발전하기 위해선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할머니들이 고물을 찾아 헤매고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오염된 물에 시달리고 눈발이 썩어가는 모습 등을 어린 시절 목격

했다"며 "전쟁 이후 지속된 고통과 배고픔, 질병 등으로 지켜왔다"고 어린시절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한국인들이 이후 단합된 목표의식을 통해 병든 나라였던 한국을 어떻게 활기차고 생산적인 사회로 바꾸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는지도 지켜왔다"며 아프리카에서도 이 같은 발전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디스아바바=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ir Conditioner + Radiator + Air Purifier'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 by Daewoo. Includes product images, spec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080-701-7117).

Advertisement for '2007 New Renewable Energy Geothermal System National Subsidy Project Announcement' (2007년 신 재생에너지 지열 시스템 국가 보조 사업 안내). Includes a diagram of a geothermal system and details about the subsidy program.